Vol.337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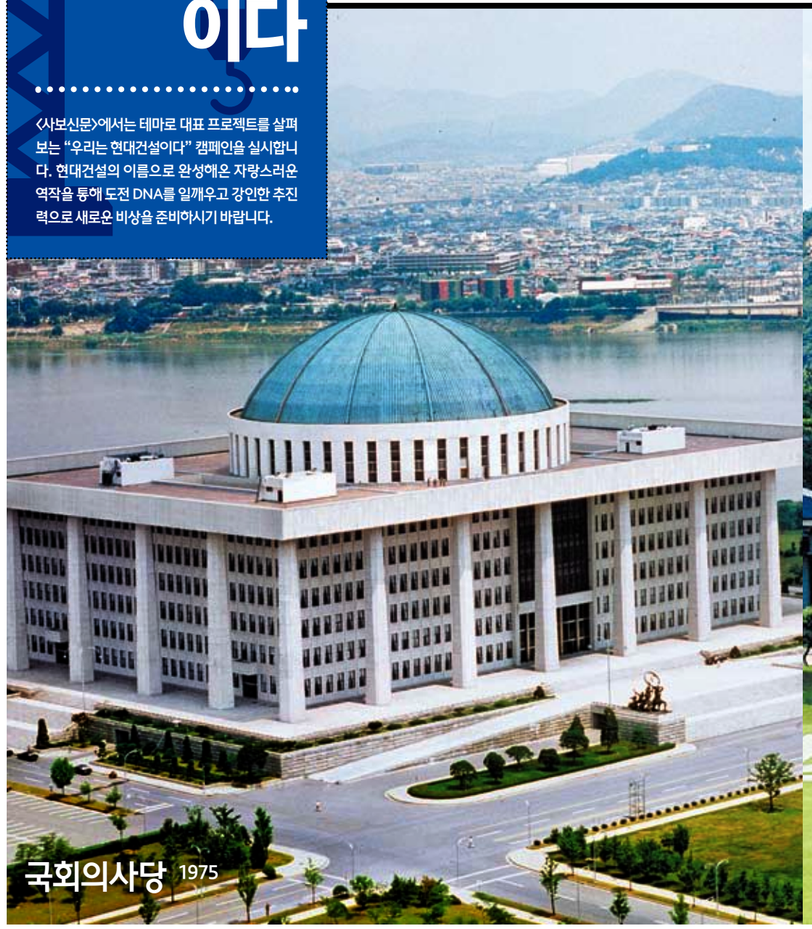
〈사보신문〉에서는 테마로 대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완성해온 자랑스러운 역작을 통해 도전 DNA를 일깨우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7 / 07 / 13 / Thursda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종로 라00049



국회의사당 1975

청와대 1992

대법원청사 1995

Hyundai E&C lays the foundation of Korea

Hyundai E&C not only took the initiative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came to prominence in the public sector. Above all things, Korea's primary builder played a major role in building democracy of the country by constructing the National Assembly Proceeding Hall, the Blue House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respectively symbolize three powers of the country including legislative branch, administrative branch and judicial branch.

In July 1969, Hyundai E&C began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ry's capitol building showing off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24 pillars, modeled after stone pillars of Gyeonghoeru Pavilion at Gyeongbokgung Palace, and a Renaissance dome. In 1977, the company began to create a masterpiece of Cheongwaedae, or the Blue House, by blending well traditional and modern architectural aspects. Another public structure worthy of notice is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has been the home of the highest court of the country since 1995. What is notable about the building is its protruding central part designed to symbolize the independence and authority of the judiciary.

대한민국의 三權을 세우다

현대건설은 국가 경제발전 견인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백년대계 기틀을 다지는 공공분 야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대한민국 3권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입법권), 청와대(행정권), 대법원청사(사법권)를 모두 지으며 국가대표 건설사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써왔다.

1969년 7월 착공에 들어간 국회의사당은 경회루 석주(石柱)를 본떠 만든 24개의 기둥과 르네상스식 돔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 현대건설에는 대규모 석공사와 돔 설치 등 새로운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공사였다. 1977년에는 청와대 공사에 도전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걸작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Blue House'라 불릴 정도로 푸른 기와와 팔각지붕이 인상적인 청와대 본관(1992)을 비롯해 외국 귀빈을 맞이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된 영빈관(1978), 청와대 관저(1990) 등이 모두 현대건설의 작품이다.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청사(1995) 역시 주목할 만한 공공건축물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지어진 서소문동 경성재판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사법부가 새 보금자리로 신축한 이 건물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중심부를 우뚝 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김포국제공항 여객청사(1980), 외환은행 본점(1980), 과천 제2 정부청사(1995),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2015) 등 대표 공공시설을 도맡아 시공하며 국가의 미래까지 건설하고 있다.

MADE IN 현대건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7
2017/07/13/Thursday

Hyundai E&C sets out to achieve second-half objectives

2017 Global Strategy Forum held between July 6 and 7

Our company has come up with detailed business strategies and workable action plans to overcome daunting challenges amid uncertain market conditions.

Our company held the 2017 Global Strategy Forum in the head office, Seoul, for two days from July 6. It was attended by about 550 staff and executive members including CEO Jung Soo-hyun, heads of business divisions and offices, team leaders, project managers working at domestic and overseas construction sites and regional directors. Under the keyword, "Change and Survival," specific action plans were discussed to deal with risks incurr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s.

On the first da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groups by business division in order to discuss the first quarter performance, pending issues in construction sites at home and abroad, and medium-and long-term roadmaps and action plans. Next day, the Planning Office presented its mid-and long-term strategies for future new businesses,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session in which business divisions announced their business plans and results of case analysis. The participants also shared in-depth opinions through the Q&A session.

In addition, this year's meeting was well received by providing a variety of programs such as education regarding business ethics, win-win approaches and management of reputation and a special lecture by Yim Yong-han, director of Korean History Society.

'구체적 전술'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 나선다

2017 글로벌 전략포럼, 6~7일 양일간 본사 대강당에서 열려

우리 회사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 전술과 강력한 실행 방안을 세웠다.

우리 회사는 7월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 계동 본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수현 사장을 비롯해 본부장, 실장, 팀장, 국내외 현장소장 및 지사장 등 5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글로벌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글로벌 전략포럼은 '변화와 생존'을 키워드로 국내외 건설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Action)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사 첫날 참석자들은 사업본부별 분임 회의를 통해 ▶상반기 실적 점검 ▶국내외 현장 현안 점검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 계획 등을 토의했다. 이튿날에는 기획실의 중장기·미래 신사업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본부별 구체적 사업전략, 수행 사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도 이번 전략포럼은 ▶윤리/상생/평판 관리 교육 ▶외부 특강(임용한 한국역사연구소장)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높였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변화와 생존'이라는 큰 틀 아래 각 사업본부가 위기 속에서 생존 전략을 찾고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논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전 본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수현 사장은 CEO 서신을 통해 글로벌 전략포럼의 논의 사항을 본사 및 국내외 현장 임직원과 공유했다. 정 사장은 "7월 10일부로 현대건설을 위기극복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운을 뗀 후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수주 극대화 ▶미착공 공사 추진 ▶진행 중이거나 준공 현장의 미결 사항 대책 수립 등을 하루빨리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기극복 체제가 임직원의 도전 정신을 일깨워 더 강한 현대건설,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수슬러지 열가수분해 에너지화 기술' 하수슬러지 분야 국내 최초 기술검증 획득

우리 회사의 '하수슬러지 열가수분해 에너지화 기술'이 환경부로부터 기술검증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국내에서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가용화 기술로 기술검증을 따낸 것은 우리 회사가 유일하다. 특히 이번 기술검증의 가장 큰 성과는 연구개발 이후 사업화의 가장 큰 난관인 시공 실적을 인정받은 데 있다.

'하수슬러지 열가수분해 에너지화 기술'은 유럽의 일부 선진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기술로, 고온·고압 조건(200도, 20기압)에서 하수슬러지의 세포막을 파괴해 기존에 비해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50% 향상시키고, 슬러지 폐기량을 30%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 건조 방식으로는 수분 함유 80%인 슬러지 1t을 처리하는 데 80만㎉가 드는 반면, 우리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는 30만㎉ 이하가 들어 에너지 소비량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병행 추진해 온 결과 사업화까지의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했다.

하수슬러지 감량 탈수 장치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2014년 환경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지 3년 만에 기술검증을 받았다"며 "독자적인 라이선스와 O&M(Operation & Maintenance) 역량 확보를 바탕으로 유관부서와 협업해 국내 및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와 해외건설 인재 공동육성 MOU 체결

우리 회사가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 고등학교(서울도시과학기술고)와 산학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7월 12일 서울도시과학기술고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을 비롯해 서울도시과기고 교장,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는 실무 능력과 함께 외국어 실력까지 갖춘 해외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해외건설·플랜트 부문 마이스터 고교로 지정돼 지난해 개교했다. 이번 MOU를 통해 서울도시과학기술고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산학겸임교

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대건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향후 현장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건설업계의 미래를 떠받들 마이스터(기술명장) 양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대우건설·한화건설 등 경쟁사를 제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를 수주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대(142만7768㎡, 43만 평)를 '친환경 수변 친수 도시' '복합형 자족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단계 3공구는 618만㎥의 성토재를 외부 반입하고 지반 개량, 차로포장, 우수관로, 주운수로 2.1㎞, 교량 15개소 등을 짓는 공사다.

우리 회사는 40%의 지분으로 진흥기업(20%)·소사벌종합건설(10%)·협성종합건업(10%) 등과 컨소시엄으로 공사에 참여한다. 총 공사 금액은 1614억 원으로(당사분 550억원, VAT 제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3개월이다.

필리핀 코르도바 지역 아이들에게 태양광 발전설비와 랜턴 기증

우리 회사가 6월 21일 필리핀 코르도바 시청 체육관에서 마리 테레스 시토이 초 코르도바 시장, 코르도바 시내 저소득층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 빛 전달식'을 했다.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 70여 명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 800여 개를 비롯해 건물 옥상에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설비(8㎾)' 1기를 기증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제3세계 이웃들을 위한 태양광 랜턴 전달 글로벌 사회 공헌활동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우리가 전달하는 태양광 랜턴과 태양광 발전설비가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교육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2016년 스리랑카 아동교육센터 건립, 동티모르 식수·위생 개선사업 등 총 15개국에서 27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19기 발대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6월 28일 서울 계동 사옥 대강당에서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한국해비타트, 기아대책, 더나은세상 등 협력기관 대표와 대학생 봉사단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19기 발대식'을 했다.

해피무브는 2008년 창단한 국내 최대의 대학생 해외 봉사단으로, 도움이 필요한 해외 주요 지역에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현대종합설계, 문경 세계명상마을 국제지명현상 당선

'문경 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 국제지명설계 공모전'에서 영국·일본 등의 유수한 설계사를 제치고 **현대종합설계**의 설계안이 최종 선정됐다. 현대종합설계가 미국 플랫(Pratt)대 건축학과 토머스 한라한(Thomas Hanrahan) 교수와 공동으로 출품한 이번 설계안은 한국 전통의 선(禪)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에 들어서는 세계명상마을은 연면적 8613.48㎡에 명상 공간, 웰컴 센터(카페 및 부대시설), 숙소, 다도실, 무문관 등 31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현대종합설계는 초급·중급·상급 등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명상 공간을 배치했다. 특히 경사진 지형을 이용한 건물 배치로 어느 곳에서든 드라마틱한 경관이 펼쳐지는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종합설계는 이번 국제현상공모 당선을 발판으로 최근 늘어나는 명상 및 수련시설 시설에 대한 설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부서 소식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 전 구간 성공적 관통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이 6월 26일 빗물저류배수터널(3.6㎞), 빗물유도터널(1.1㎞) 등 총 4.7㎞의 전 구간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다.

강서구·양천구 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계획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폭우 시 50여m 지하에 위치한 직경 10m, 길이 3.6㎞의 배수터널에 빗물을 유입시킨 후 인근 안양천으로 강제 배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 관계자는 "지질 상태가 안 좋고 용출수가 많은 지하 50m의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1491일 동안 한 건의 중대 재해 없이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다"며 "올여름부터 임시 가동이 가능해 지역 주민들의 침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본부 이석홍 본부장, Urban Sustainability R&D Congress 발표

연구개발본부 이석홍 본부장이 6월 30일 싱가포르의 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가 주최한 'Urban Sustainability R&D Congress'의 발표자로 나섰다. 'Urban Sustainability R&D Congress'는 싱가포르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2년마다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이석홍 본부장은 'Advanced Construction' 분야의 강연자로 나서 건설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7
2017/07/13/Thursday

Hollywood finds opportunity in Korea

June 30

Korean auteur Bong Joon-ho made headlines two years ago when Netflix announced that it would cover the entire $50 million budget of his next movie, "Okja." It was the first attempt by the American streaming giant to invest such a large budget into a film from a Korean director. Though the action blockbuster,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a young girl and a superpig, drew controversy for its limited theatrical release, it was honored to compete at the 70th Cannes Film Festival last month.

Such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come more active over the years.

American studios increasing Korean releases

One of the most active American entertainment behemoths to set foot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is 20th Century Fox.

Fox International Productions (FIP), the local movie-making arm of 20th Century Fox, first invested in local production in 2010 with a 20 percent stake in director Na Hong-jin's "The Yellow Sea." In 2013, the company fully financed 2013's action comedy "Runningman." Ever since, FIP continued to work on Korean movies like the 2014's comedy "Slow Video" and action crime drama "Intimate Enemies."

The most successful Korean movie by FIP so far is last year's mystery thriller "The Wailing." Directed by Na and starring Gwak Do-won, the movie was a box office hit with an impressive 6.88 million tickets sold.

Warner Bros. is another Hollywood Studio that has made inroads into Korean film industry. Their first Korean-language project was last year's period drama "The Age of Shadows," which sold 7.5 million admissions.

Warner Bros. also financed the low budget movie "Single Rider," released in February. The company is expecting another Korean release later this year. Titled "V.I.P," the spy thriller will star Jang Dong-gun and Kim Myung-min.

Korean locations in Hollywood movies

Seeing Korean locales in Hollywood movies is no longer uncommon. Marvel Studios' "The Avengers: Age of Ultron" (2015) chose Korea as one of the film's locations, and audiences were introduced to spots like the Mapo Bridge in western Seoul and Some Sevit, an artificial island on the Han River. Marvel returned to Korea earlier this year to shoot some scenes of its upcoming superhero feature "Black Panther."

Though it remains yet unknown what will appear in the film, Marvel reportedly used the southern port city of Busan as the backdrop for a huge car chase scene and gun battles.

A few other movies that showed scenes in Korea include the thriller franchise "The Bourne Legacy," (2012) "Colossal," which was released in April, and the second installment of the sci-fi monster franchise "Pacific Rim: Uprising," slated to hit theaters next year.

By KOREA JOONGANG DAILY

Number of foreigners studying hits record

July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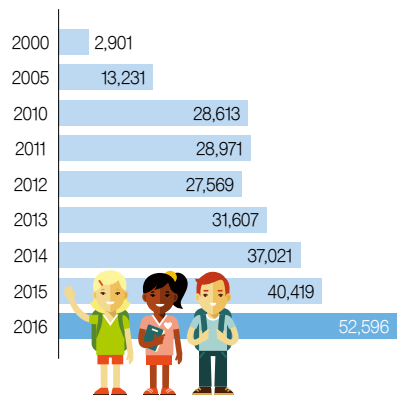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coming to Korea jumped nearly 30 percent last year and hit an all-time high.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ursday,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entered Korea on student visas reached 53,000 in 2016, up 12,000 from the previous year. It was the highest number since the government started to compile the data in its current form. The figure nearly doubled from 2012's 2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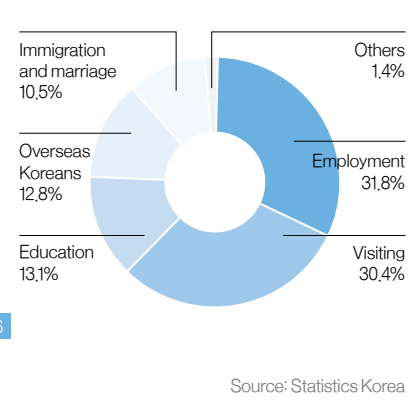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entering the country reached an all-time high and it appears that it grew significantly after the government decided to ease the visa proces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2015," said Lee Jee-yeon, a director at the agency. In 2015, the government eased regulations on visas for foreign students and allowed them to qualify for health care insurance. The move was meant to attract more foreign talent to the country.

By KOREA JOONGANG DAILY

Foreign students on the rise



Reasons for coming to Korea



Source: Statistics Korea

Group News

Hyundai Motorsport celebrates sixth WRC win with 1-2 in Rally Po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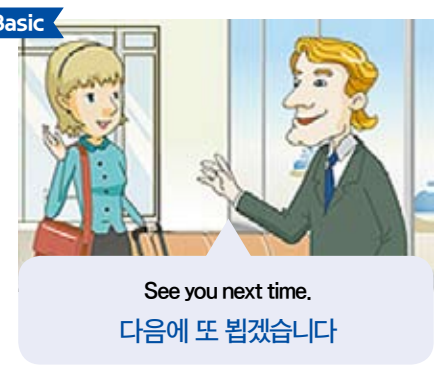
Hyundai Motorsport has registered its third victory of the 2017 FIA World Rally Championship (WRC) with Thierry Neuville and Hayden Paddon securing the team's first 1-2 in WRC since Rallye Deutschland 2014. Dani Sordo completed the rally in fourth place overall, making it the most successful combined result for Hyundai Motorsport in the team's history. Neuville's win represents the sixth overall WRC victory for Hyundai Motorsport since 2014, as well as the seventh double podium for the team. The result means that Hyundai Motorsport has strengthened its hold on second place in the Manufacturers' Championship, reducing the gap to M-Sport from 40 to 22 with five rounds remaining.

Design prize for futuristic Kia Telluride concept

The Kia Telluride - a full-size SUV concept from Kia Motors - has received a prestigious design prize from the Internation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IDSA). Kia received a 2017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IDEA) bronze medal in the 'Transportation' category for the concept car, which was unveiled last year at the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in Detroit. Kia has built a reputation for world-class design in recent years, and previously won IDEA prizes. The Telluride was designed at Kia's California design studio, Kia Design Center America. Peter Schreyer, President and Chief Design Officer of Kia Motors commented: "The Telluride is a bold statement for Kia, providing a glimpse into how our designers would elevate levels of luxury into Kia's future SUV lineup."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ituational context

Michael says good-bye at the airport because his client from France is going back to her country today. Michael wants to say good-bye and hopes to meet again next time. At this point, he can say, "다음에 뵙겠습니다."

Today's dialogue

마이클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annyeonghi gaseyo. da-eume tto boepkkesseumnida.
에밀리	네, 프랑스에 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ne, France-e gamyeon yeollak deurigesseumnida.
Michael	Have a safe trip. See you next time.
Emily	Sure. I will contact you when I arrive in France.

One more expression

Between close friends, you can also say good-bye, such as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Please come and hang out with me again.) or "또 만나요."(See you again.)

Intermediate

Why don't we have a meal together?
식사 한번 같이 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meets his old coworker Min-su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Michael wants to invite him to a meal so they can catch up. At the point, he can say, "식사 한번 같이 해요."

Today's dialogue

마이클	민수씨, 오랜만이에요.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해요. Min-su ssi, oraenmani-eyo. eonje siksa hanbeon gachihaeyo.
민수	네, 좋아요. ne, jo-ayo.
Michael	Min-su, Long time no see. Why don't we have a meal together some time?
Min-su	That sounds great.

One more expression

You can use this expression when you want to talk with somebody about business. You can suggest "언제 차 한잔 같이 해요."(Why don't we have tea some time?) or "술 한잔 같이 해요." (How about drinking together some time?)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7
2017/07/13/Thursday

수면 위에 떠 있는 '플로팅 건축(Floating construction)'이 새로운 건축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토지 대신 수면을 활용한다는 공간 활용의 장점 이외에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되고 친환경 건축 등의 사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다. 글·사진=문창호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1

2

3

4

5

물 위에서 산다, 플로팅 건축

플로팅 건축이란?

도시 내 가용 토지의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수상 레포츠의 요구 증가 등으로 플로팅 건축이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플로팅 건축은 부유 시스템(폰툰, pontoon)을 갖고 있어서 물 위에 떠 있는 건축물 또는 필요시 물 위로 떠오르는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다. 일정한 위치에 계류돼 있고, 항해를 위한 조종시설이 없으며, 육지의 건물과 마찬가지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자연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낀다.

현재 대부분의 플로팅 건축은 비교적 잔잔한 강, 호수, 운하에 지어졌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해수면이 육지보다 높은 네덜란드를 비롯해 독일·스웨덴 등지에서 활용도가 높다. 바다에도 일부 플로팅 빌딩이 지어져 있는데, 수역의 전제 조건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잔잔한 정온수역(calm water)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플로팅 건축물을 보면 단독주택, 아파트, 호텔, 레스토랑, 카페, 학교, 사무실, 교도소, 전시 및 이벤트 홀, 수족관, 스타디움, 방문객 센터 등 거의 모든 용도로 활용된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편의성과 효율성도 높아

플로팅 건축은 육지의 건축에 비해 해수면 상승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지속되는 해수면 상승으로 2100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인 20억 명이 기후변화 난민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대가 높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으로 본다. 동일한 우려에 대한 정반대의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건축사무소 Delta Sync는 차라리 물과 함께 살아가자는 플로팅 도시(Floating City, Blue 21)를 제안하기도 한다. 저지대 해안 지역의 경우 한없이 제방을 쌓거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플로팅 도시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플로팅 건축은 최근 각광받는 레저 분야인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건축 형태이기도 하다. 전원생활을 즐기듯 수변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플로팅 건축이 물 위에 건설되는 점을 생각하면 수열교환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물은 대기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난방과 냉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역이 육지에 비해 바람 자원이 풍부하므로 플로팅 건축에서 소규모 풍력발전도 가능하고, 주변에 높은 장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태양에너지 적용도 용이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력이나 파력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플로팅 건축은 수상에서 공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장(도크 등)에서 제작한 뒤 수상이나 육상으로 운반해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플로팅 건축에 모듈러 시스템을 도입해 조립식으로 디자인하면 공장에서 시공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면 현장의 쓰레기 발생을 최대로 억제하고 공사 중 이웃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각적인 조사와 시험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수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 또한 문제가 없다. 전기와 하수 시설, 재난 대비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태풍이 불어도 건물 내부에서는 육지의 건물에서처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다, 강이나 호수에서 외력에 대비하기에 최대한 유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플로팅 건축물이 빛을 차단해 수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수중 생물의 서식이나 이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건축물의 적절한 간격 유지와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법 개정돼 국내 활성화 기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 공간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미개척 분야다. 우리나라는 플로팅 건축 연구단의 노력에 힘입어 2016년에 부유식 건축물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동안은 플로팅 건축물이 선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해 건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건축법 테두리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플로팅 건축물의 재산권이 인정돼 마리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물에 친숙하고 수상 활동을 즐기기를 원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플로팅 건축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요즘의 화두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플로팅 건축은 물 위에 지어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열을 최대한 이용하고 풍력과 태양 에너지도 적극 활용하는 등 '제로 에너지' 건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변 공간은 개발 잠재력 높은 분야…
환경 친화적이며 편의성도 높아
2016년 건축법 개정으로 활성화 기대

해외의 플로팅 건축 사례

1 네덜란드와 독일의 플로팅 주택

강과 운하가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플로팅 주택을 쉽게 볼 수 있다. 앞으로 증가할 여지도 많다. 자연 발생적으로 건축된 주거단지 및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도 있으며, 건축가와 건축주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주택도 많이 보인다.

2 플로팅 전시관 (Floating Pavilion)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플로팅 전시관은 지름이 각각 18.5m, 20m, 24m인 3개의 반구형 지붕으로 구성된 복합체다. 건물의 최고 높이는 12m이고 바닥 면적은 1104㎡다. 폰툰은 두께 2.5m 스티로폼 위에 콘크리트 빔과 슬래브를 얹은 구조로 제작했다. 이 건물은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플로팅 전시관은 전시나 단체의 행사 및 회의를 위해 임대할 수 있는데, 방문객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강당에는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3 함부르크 도시건축정보센터 (IBA Dock)

독일 함부르크의 엘베강에 떠 있는데, 2010년 국제건축전시회(International Building Exhibition) 때 본부 건물로 사용됐고, 현재는 함부르크 도시건축정보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계류시설을 이용해 하루 3.5m 정도의 엘베강 수위 차이에 적응한다. 건물은 콘크리트 폰툰 위에 철재로 모듈러를 적용해 조립식으로 지어졌다. 엘베강의 수열을 이용하고, 태양열 및 태양광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4 미주지역의 플로팅 주거단지

미국과 캐나다의 서해안에는 플로팅 주거단지가 조성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밴쿠버 지역은 프레이저강과 밴쿠버 항구에, 미국 시애틀 지역은 유니언 호수에 500여 채가 밀집돼 있다. 포틀랜드 지역은 윌래밋강에 기존의 주거단지와 더불어 새로운 플로팅 단지의 신축이 활발하다. 샌프란시스코 소살리토 지역도 오랜 주거단지다. 예전에는 대지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임시 주거 성격의 플로팅 주택에 살았지만 이제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고소득층이 기존 플로팅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등 고급주택 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5 플로팅 호텔 Salt & Sill

스웨덴 남서부 소도시인 클래데스홀멘(Kladesholmen) 섬에 2008년 건립된 플로팅 호텔이다. 주변에 마땅한 땅이 없고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지어졌다. 비록 시골의 조그만 해안에 위치하지만 연중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지상 2층, 23실 규모이며, 콘크리트 폰툰 위에 목조 구조다. 바닷물의 수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1층 바닥을 폰툰 위로 약간 띄워 각종 설비 라인의 배선을 관리하는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췄다.

우리 회사가 우수 외국인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부터 한국 전통문화 체험까지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된 'Global Talent Program'의 모든 것을 〈사보신문〉에서 공개한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2

3

4

1 우수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민속촌 앞에서 환한 미소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 환영사 중인 정수현 사장. 3·4 외국인 직원들은 3박4일간 회사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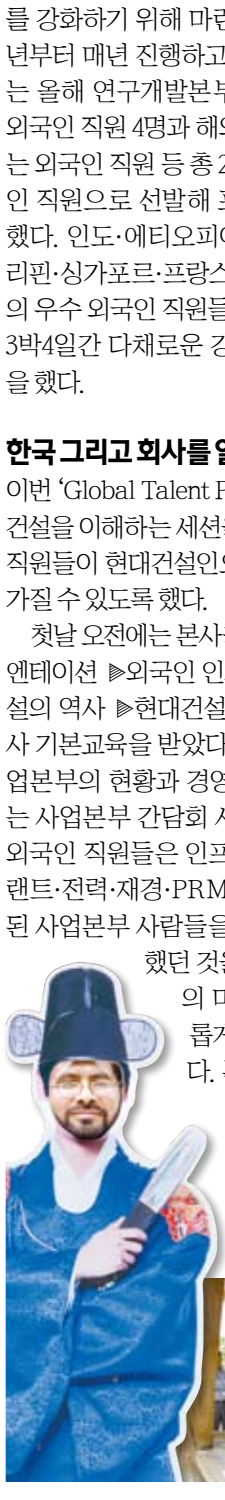
우수 외국인 직원이 한자리에! 3박4일간의 Global Talent Program

지난달 26일 'Global Talent Program'의 막이 올랐다. 이 교육은 우수 외국인 직원의 회사 이해도를 높이고 로열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연구개발본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4명과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 등 총 20명을 우수 외국인 직원으로 선발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도·에티오피아·영국·미국·필리핀·싱가포르·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우수 외국인 직원들은 6월 26일부터 3박4일간 다채로운 강의와 체험 활동을 했다.

한국 그리고 회사를 알다

이번 'Global Talent Program'은 현대건설을 이해하는 세션을 확대해 외국인 직원들이 현대건설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첫날 오전에는 본사를 방문해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인사제도 ▶현대건설의 역사 ▶현대건설 경영 현황 등 회사 기본교육을 받았다. 오후에는 각 사업본부의 현황과 경영 전략을 소개하는 사업본부 간담회 시간이 마련됐다. 외국인 직원들은 인프라환경·건축·플랜트·전력·재경·PRM 등 자신이 소속된 사업본부 사람들을 만나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묻고 현대건설의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본사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많은 외국인 직원이 고대한 CEO 환영사였다. 정수현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인용해 "현대건설은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 왔다. 앞으로 현대건설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Trust(신뢰)·Transformation(변화)·Technology(기술력)·Tomorrow(미래 지향) 등 '4T'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사장은 "여러분이 현대건설 멤버로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저녁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명동 관광 및 문화행사 참여 시간으로 꾸며졌다. 자유롭게 관광하며 명동 거리를 즐긴 후에는 외국인에게 인기 높은 공연인 '난타'를 관람했다. 난타 팀의 멋진 공연에 외국인 직원들은 연신 박수를 치고, 박자를 타며 첫날 교육의 긴장감과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떨쳐 보냈다.

2일차 오전에는 현대차그룹 마북 인재개발원을 투어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받았다. 우리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나눠 준 『한국어 핸드북』을 받아 든 외국인 직원들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익혔다. 쉬는 시간에도 핸드북을 들고 다니며 한국어를 실습하는 이가 많을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나라 전통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한국민속촌을 찾았다. 외국인 직원들은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경이 신기한 듯 전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조선시대 가옥, 전통 공방, 관아 등 이곳저곳을 살피며 관광했다. 농악놀이, 줄타기, 마상 무예 등의 공연을 관람할 때는 환호성을 보내며 한국 특유의 흥을 즐기기도 했다. '추억 남기기' 또한 빼놓지 않았다. 외국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다니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잊혀지지 않을 한국에서의 추억이 기념사진으로 남겨지는 순간이었다.

현대건설과 함께 더욱 성장하기를!

셋째 날은 현대자동차그룹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직원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가치와 비즈니스 이해 교육을 받은 후 우리 회사 '기술의 핵심'인 연구개발본부를 방문했다. 풍동실험실·구조실험실 등과 같은 각종 실험실과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를 견학하며 '세계 속의 기술 현대'의 저력을 확인했다. UAE 사브 해상원유 및 가스처리 시설 공사 현장 Santhosh Mollite 직원은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장에 가면 오늘 보고 느낀 것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견학. 현대차 아산공장은 쏘나타·그랜저·아슬란 등 매년 30만 대의 중대형 승용차와 60만 대의 엔진 생산이 가능한 곳이다. 외국인 직원들은 프레스 공장과 차체 조립 공장에서 최첨단 생산 장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 호텔에서 'Farewell Party(송별 행사)'가 열렸다. 두바이 대관람차 공사 현장 Dean Jeoffrey Endal 직원은 "직접 와서 보니 우리가 속해 있는 현대건설이 잘 조직화된 회사인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내일이면 귀국한다니 믿기지 않는다. 두바이에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29일 목요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오전에 ▶품질관리 ▶해외 HSE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1차 귀국자들이 인천공항으로 출국했다. 외국인 직원들은 출발 전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가볍게 포옹을 하며 그동안 쌓인 정을 주고받았다. 남은 외국인 직원들은 송도 시티투어에 참가한 후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 회사는 해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직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매년 우수 외국인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또 외국인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3박4일간의 일정을 보낸 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20명의 우수 외국인 직원들. Global Talent Program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토대로 회사와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전통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한국민속촌에 간 외국인 직원들.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MINI Interview

Question

1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t Hyundai E&C?
2 What was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or lecture you had during this program?
3 When do you feel pride as a part of Hyundai E&C?
4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the staff and executives of Hyundai E&C?

Mohammad Aslam Asadullah Shaikh
UAE 사브 해상원유 및 가스처리 시설 공사 현장

1 I have been working as an accounting staff at KUSCA, Kuwait since 2013.

2 This is one of the most memorable visits in my lifetime. During the Global Talent Program, I especially loved the welcome speech given by our CEO. I was very honored and felt that it was a privilege to meet our CEO. Our CEO emphasized unity and prosperity together, and now I believe that Hyundai E&C is really our very own company.

3 I would like to give the following message to my fellow staff: Hyundai E&C has great potential. Because Hyundai E&C also regards us foreigners as a part of the company, we are not alone, and we will work hard to make the company great.

4 Thank you for providing us with this opportunity.

Joseph Vincent Mulligan
두바이 대관람차 공사 현장

1 I'm working as Mechanical, Electrical & Public Health (MEP) Coordinator for the Dubai I Project. I coordinate MEP works with the civil & architectural sections of Hyundai E&C and with utility & service providers.

2 The lecture titled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helped me understand the Korean way of thinking and working and will help me enormously communicate with my Korean colleagues in the future.

3 I am very proud to be a part of the company which has achieved great success and growth through lateral thinking and its "Can Do" approach to problem solving. I believe these are attributes that will enable the company to prosper during the hard times ahead.

4 Thank you for the planning prior to our arrival and all the assistance during the whole time. Please continue to use our founder's "Can Do" approach, so we can continue to grow and prosper together.

2017년 상반기에 대한민국은 기존에 없던 큰 변화를 겪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운 정책이 제시됐다.
새롭게 맞이한 2017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변화해나갈지 짚어본다. 정리=김보나

2017 하반기 대한민국 트렌드&핫 이슈 6

생활·문화·트렌드

1 일과 삶의 조화, 워라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조어인 '워라밸'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신조어까지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대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길다. 우리나라에서 야근과 철야는 경제발전이 시작된 시기만큼이나 오래되고 익숙한 단어다. 장기간의 근로는 단기간 고성장이라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사회의 성장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장시간 일하는 근로 문화가 지속되면서 야근 및 철야는 노동생산성 저하나 과도한 스트레스, 가족 간 소통 부재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퇴근 후 가족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거나, 업무로 지친 나에게 휴식을 주는 등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근로 환경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취업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은 높은 연봉을 주는 기업보다 야근을 덜 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가장 선호하는 근무 환경 1위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퇴근 문화'를 꼽는다.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다. 업계 특성에 따라 적용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시간선택제나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연차 활용이나 육아휴직 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던 제도에 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는 중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도 매년 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의무화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이며, 사회적으로는 가족 중심 공동체 기반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앞으로도 '워라밸'에 대한 인식은 점차 중요해지고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이 중요해, YOLO와 얼리힐링족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에 열풍을 불러온 단어, 욜로(YOLO)는 'You Only Live Once'를 줄인 말로 인생은 한번뿐이라는 뜻이다. 미국 뮤지션의 노래에서 처음 사용된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한 여행 예능프로그램에서 언급돼 널리 알려졌다.

욜로는 미래나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의 나를 위해 행복을 추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를 설명하던 기존의 'N포족'이라는 개념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불확실한 현실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미래를 바꿔 가기는 힘들다.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에 열중해도 '티끌 모아 티끌'이다.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나 여가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다. 중장년층이 아닌 젊은 30대부터 건강과 여가, 웰빙, 편의에 신경 쓰는 '얼리힐링족'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소비 통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BC카드 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30대 소비자들은 여행, 자동차, 취미와 자기계발(운동·서적 등)등 개인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크게 늘렸다.

최근에는 욜로의 의미를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변질시키지 말고, 본래 의미를 살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욜로란 현재의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며, 카르페 디엠의 라이프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3 혼자서도 잘 산다, 1코노미와 가성비

경기 불황과 취업난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현재와 나 자신에 맞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는 인구보다는 1인 가구가 늘어났다. 결혼 후에 오는 출산과 양육, 복합적 관계와 사회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금전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나'를 포기하고 살기 싫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유통이나 산업 등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밥'과 '혼술'은 물론, 더 나아가 혼자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는 '혼영''혼행'도 일상이 됐다. 기존에는 비효율적이라며 1인 가구 타깃 제품이나 소량 생산에 주저했던 산업계도 새로운 경제 세력으로 부상한 이들을 잡기 위해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 이때문에 1인+이코노미를 합친 '1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1인 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구매력이 왕성하다. 현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미생활 혹은 자기 개발에 지출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10만원이 훌쩍 넘는 공연을 보기 위해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7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으며 커피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원하는 바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소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성비(價性比)'라는 개념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널리 쓰이고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인 가성비는 가격에 비해 물건의 성능(또는 용량)이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낸다. 같은 가격이면 더 높은 퀄리티를, 같은 퀄리티면 더 낮은 가격을 선호한다. 이제 대중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브랜드나 광고에 휘말려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다. 성능과 스펙을 따져 소비하는 대중들 덕분에 마트나 편의점에는 브랜드가 없는 'PB상품'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탐색한 정보와 취향을 바탕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흐름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산업·정책·핫 이슈

4 2017년 최고의 화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매년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2016년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국정 화두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4대 복합 혁신 과제' 중 하나에도 포함됐다. 오는 8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4차 산업혁명의 정확한 의미조차 알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빅데이터는 금융·의료·제조·통신·유통 등 모든 산업 분야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중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진단과 치료 방법을 발견하고 보완하며, 금융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아이폰의 '시리', 구글의 '알파고', KT의 '기가지니' 넷플릭스의 '시네매치' 등 인공지능 기반의 에이전트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콘텐트를 제공한다. 사물인터넷과 소물인터넷은 스마트 홈 기술은 물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식단을 기록하는 스마트 포크와 도시락 등에

까지 사용된다. 4G LTE보다 반응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른 네트워크, 5G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타 기반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2017년 하반기 다보스포럼의 의제는 '4차 산업혁명 충격 속 포용적 성장의 길'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기술적 변화는 전 세계 산업구조나 노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장 및 포용적 성장이라는 숙제를 남긴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창출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에 주목하고, 그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을 융합해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공공 인력을 양성하며, 빅데이터를 개방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혁신 기술과 열린 기업 문화를 지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술과 산업의 성장은 인간을 이해할 때 가능하며,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체 또한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기술이 상생을 이룰 사회 변화를 기대해본다.

5 4차 산업혁명, 건설업에 혁신을 가져오다

건설업계는 이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드론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스마트 홈과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스마트 컨스트럭션 등 생활을 바꿀 첨단 기술은 건설과 밀접하게 연관돼 일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5월 힐스테이트 동탄 현장 분양 시 국내 최초로 스마트 홈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시스템을 적용했다. 현재 힐스테이트 목동 등 2000여 가구 고객들도 하이오티 시스템의 편리성을 경험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세대 내 에너지 사용도 관리한다.

스마트 시티는 센서 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에너지·교통·수자원·빌딩·인프라·보안 등 도시의 구성 요소와 공공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구성 요소 역시 첨단 통신시설을 갖추고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는 연결 체계를 구현한다. 이로써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도시 관리 서비스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간 연구개발(R&D기술)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과 차량기술의 융합으로 차세대 자율주행도로 건설 시장 우위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 중 핵심인 교통 부문, ITS(지능형 교통체어시스템)를 제2 영동고속도로에 구현 및 적용하는 데 사는 회사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국내외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 발굴을 통해 발전 운영사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세계가 고민 중인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공통분모다. 태양광과 풍력 등은 환경 문제 없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미래의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설비 효율 향상 및 대규모 설비 조성으로 발전 단가 하락에 힘입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1위 풍력발전기업체 Vestas가 스웨덴에서 사상 최대의 400㎿의 수주를 했고, 호주에서도 메가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도 원전 국영업체인 로사톰이 풍력단지 건설에 들어갔으며, 신재생에너지에 성공했으며, 그룹 협업을 통해 개발한 '차량 정보 이용 노면온도 예측 시스템'은 겨울철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정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운송과 유통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 고속도로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간의 통신과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 지도 제작, 법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1년까지 순차적 자율주행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현장안전관리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건설업계에서 시도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특히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작업자에게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을 조만간 실증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6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 대신 4%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2030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망이다. 신규 설치량 중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은 약 80%에 이르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 및 수출 지원, 세금 감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4개 분과가 세부 정책을 확정해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리 회

의 투자가 전무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과 관련 부서의 법적 규제로 인한 입지 확보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난제로 작용했던 만큼 정부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처럼 정부가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면 단기간에 풍력 및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고 발전단가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건축가 오영욱이 솔직한 건축 이야기를 펴냈다. 『변덕주의자들의 도시』(오영욱 지음, 페이퍼스토리)는 위대한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오영욱의 시선으로 탐색하고, 그것을 그가 지은 '우연한 빌딩'에 투영한 여정의 기록이다. 글=엄지혜 〈채널예스〉 기자 / 사진=이관형

건축가 오영욱

콘크리트로 그림을 그리다

오영욱이 설계한 '우연한 빌딩' 외관.

흔들리는 마음에 대처하는 건축적 자세

"어떻게 보면 좋을까?" 싶은 책을 만날 때가 있다. 무작정 읽어도 좋겠지만 약간의 엉뚱한 생각을 하고 보면 더 좋을 책. 오영욱의 『변덕주의자들의 도시』를 보고 든 생각이다. 이 책은 오영욱이 지난 20년간 위대한 생각이 담긴 도시들을 찾아다녔던 경험으로 서울 이태원의 녹사평 언덕 위에 '우연한 빌딩'을 지은 기록이다.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39. 이곳에 오영욱이 지은 '우연한 빌딩'이 있다. 1, 2층은 임대를 주고 3, 4, 5층에 그의 건축사무소가 있다. 재밌는 건 1층이 8.9평, 2층이 12.8평, 3층이 13.9평이라는 사실이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이 그림 같은 빌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설계부터 완공까지 걸린 시간은 1년6개월. 그 모든 여정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이 동행했다. 작가는 답한다. 정직한 삶처럼 겉과 속이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가제가 '실패의 기록'이었다고요.

(웃음) 건축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0여 년이 됐어요. 그간의 기록을 모으면 성공보단 실패가 많겠죠. 이 책은 결국 꿈이 연착륙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고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같이 잘 안 되고요. 1만 명이 꿈을 꾼다면 1명 정도가 돋보이는 일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9999명의 삶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각각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자서전일지도 몰라요. 꼭 성공담을 읽어야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실패의 기록을 통해 자기 삶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았어요.

건축을 보는 여러 시선도 곁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덜할지 모르니까요. 지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을 넣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건축을 해온 생각들을 정리했어요.

'우연한 빌딩'을 짓고 친한 친구로부터 "딱 너 같다"는 평가를 들으셨더라고요.

빌딩을 오픈하고 옥상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작은 것 하나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지. 고생했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연한 빌딩'에 들어서면서 느낀 감정은 "앗, 재밌다"예요.

그림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잠깐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10초라도 전경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 이 건물은 사실 조각이에요. 건물은 1층 임대료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1층을 크게 짓는 게 보통인데, '우연한 빌딩'은 위층으로 갈수록 더 넓어요. 차로로부터도 멀찍이 떨어져 있고, 건물과 길 사이에 있는 배수구에는 재밌는 글자를 적었어요. 건물에 꼭 들어서지 않아도 보고 재밌어 할 수 있는 모습을 넣고 싶었어요.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처럼 변덕스러운 클라이언트는 처음이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변덕이 가장 심했나요?

너무 많아요. (웃음) 모든 요소가 대여섯 번 이상의 변덕을 거쳤을 거예요. 창문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형태부터 간단하지 않았어요. 일단 건축법을 지키면서 구불구불한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이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장소가 좋아서 건물을 짓게 된 거라서요. 남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인 건물은 어떤 형태일까,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가

'오기사'라는 별칭으로 이미 유명한 여행작가, 건축작가이신데. 결혼 후 배우 '엄지원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커졌는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콤플렉스라고까지 할 수 있는 '말하기'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책은 제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건축을 포함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 무대 앞에 서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정신과 의사인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아직도 무대에 서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무대 공포증의 원인은 실제 자신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이 말이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물론 답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가진 모습을 온전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물론 때때로 자존감이 사라질 때가 있지만 마음속의 원칙은 잡혔어요. 엄지원의 남편이 됐든, 입만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든, 이 사람의 디자인은 잘 모르겠다는 평가를 듣든, 상관없어요.

아내에게 청혼하기 위해 만든 책 『청혼』의 부제가 '너를 위해서라면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어'였잖아요. 어떠세요?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강아지(비키)를 입양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하루 15시간 이상을 건축 일에 쏟았거든요.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늘 건축 이야기만 했고요. 결혼 전에는 골방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아내도 있고 집이 넓어져 집안일도 많아졌어요. 7시간 정도는 가정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15시간에서 7시간을 빼면 제가 건축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8시간 정도인데요. 아마 위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더 투자해서 훌륭한 일을 하겠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을 따져 보니 아내, 강아지와의 시간을 포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우연한 빌딩'을 짓게 된 것도 여유 있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고요.

건축작가로서 꿈이 있다면요.

이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웃긴 건축, 웃게 만드는 건축을 하고 싶은 막연한 희망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건축과를 선택한 후 유럽 답사를 갔는데, 프랑스에서 '르코르뷔지에'가 지은 수도원을 보고 무척 감동했어요. 거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수도원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울 것 같았어요. 물론 건축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감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멋있는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작은 요소를 만들고 싶어요.

한 달 간격으로 새 책이 또 나왔어요.

『변덕주의자들의 도시』 도, 『중국인은 왜 시끄러운가』 도 정말 신나서 썼어요. 세상을 전복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 같은 건 없지만, 10도 정도 곁가지로 벗어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에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라고 말하는 느낌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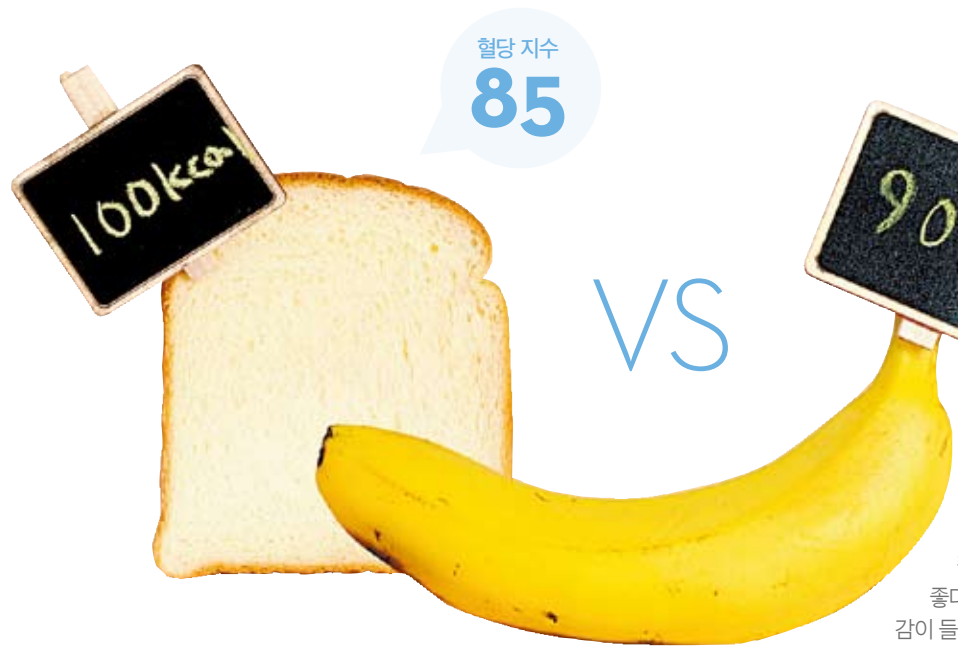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책 없이'라는 말이 아주 순수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저질러야지' 하는 순간, '이걸 어떡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거든요. 어릴 때 저지르는 사고와 지금 저지르는 사고는 좀 다른 거죠. 다만 제 소망은 이런 대책 없는 사고가 너무 없어지진 않았으면 해요. 어느 정도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감당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오영욱 作 상징_반환경적 광장을 기다리며.

칼로리 칼같이 따졌는데, 왜 살이 찌지?

다이어트 망치는 칼로리의 함정



◀흰 식빵 한 쪽과 바나나 한 개는 칼로리가 서로 비슷하다. 하지만 혈당 지수는 식빵(85)이 바나나(55)보다 훨씬 높다. 식빵은 잼을 바르지 말고 삶은 계란이나 오이 등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들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열량 줄이면 당장은 체중 줄지만 배고픔 못 참아 폭식으로 원위치
섬유질 많은 야채로 포만감 줘야
제로 칼로리 음료는 되레 역효과

섬유질 많은 야채로 포만감 줘야

체중을 감량하려고 칼로리를 따져 먹는 사람이 많다. 칼로리는 음식이 갖고 있는 에너지다. 칼로리가 낮을수록 무조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이기영(대한비만학회 이사) 교수는 "같은 칼로리라도 포만감 정도, 영양소 구성, 혈당 지수(포도당의 농도)에 따라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칼로리의 양에만 집착한 다이어트는 지속하기 어려워 실패하기 쉽다. K씨는 다이어트를 할 때면 과자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운다. 일정 기간 그렇게 하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밥을 더 먹게 됐다. 그러자 금세 체중이 원위치가 됐다. K씨는 "밥 대신 과자를 먹으면 칼로리가 적어져 당장은 살이 빠졌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 그걸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K씨는 음료를 고를 때도 칼로리가 없는 '제로 콜라'만 마신다. K씨의 실패 사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박경희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포만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칼로리만 따졌기 때문에 K씨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로리가 적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식품을 먹으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 대표적이다. 박 교수는 "일정한 양을 먹어야 배부르다는 느낌이 든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식사량이 줄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과자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 금세 허기진다.

'제로 칼로리' 음료도 체중 감량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들 음료는 설탕을 넣지 않아 칼로리가 거의 없다. 대신 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다. 영양소가 없는 성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아챈다. 곧바로 당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 음식을 더 먹게 만든다.

같은 칼로리라도 탄수화물이 더 살찌게 만들어

같은 칼로리라도 탄수화물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이 더 잘 쌓인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똑같이 1g당 4칼로리다. 이기영 교수는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인슐린은 쓰고 남은 당을 지방세포로 축적하는 역할을 해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면 살이 잘 찐다"고 말했다. 반면에 단백질이나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려면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이나 단백질 비중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 토스트를 먹을 때 빵에 '잼+오렌지주스'를 곁들이는 것과 '삶은 계란+우유+오이'를 먹는 건 칼로리가 비슷하다. 그러나 '빵+잼+오렌지주스'의 주요 영양소는 대다수가 탄수화물이라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 그래서 빵에 삶은 계란과 우유를 먹어 단백질을 곁들이고 오이·당근 같은 섬유질을 같이 먹는 것이 살이 덜 찐다.

포도당 농도인 GI(Glycemic Index, 혈당 지수)를 고려하는 것도 체중 감량에 일부 도움이 된다. GI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혈당 농도가 상승하는 정도를 말한다. GI가 높아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내리면 배고픔을 잘 느낀다. 반면에 GI가 낮으면 체내에서 느리게 분해·흡수돼 포만감을 오래 느낀다. 식사할 때 GI가 낮은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으면 포만감을 채우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이기영 교수는 "당뇨환자의 경우 같은 김치찌개라도 집에서 먹었을 땐 혈당이 100까지 오르는데 외식하면 두 배가 된다고 말한다. 외식 음식의 나트륨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살이 덜 찐다.

칼로리를 언제 섭취하느냐도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 아침에 더 먹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밤에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성장호르몬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아침을 굶고 저녁에 배가 고파 과식하면 지방세포 축적을 촉진하는 인슐린 분비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오전에는 칼로리를 소비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저녁에는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글=이민영 〈중앙일보〉 기자 / 사진=중앙포토

똑똑한 회사생활 Tip

행복해지는 '사내관계 정리법'

상대의 장점 리스트를 작성하라!

1년 동안 업무적으로 대화를 나눴거나 기억 나는 사내 관계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사람들 별로 배울 점이나 장점들을 기록해보자. 누구나 자신보다 잘하거나 존경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나 직장 상사라도 한 가지 정도는 배울 점이 있다. 배울 점을 찾게 되면 자연히 말을 건넬 기회가 늘어나 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그들에게 업무 비법을 전수받을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점심 시간을 활용하라!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는 매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새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고 한다. 매일 똑같은 사람과 밥을 먹지 말고, 요즘 소원했던 동료나 상사를 한 명씩 만나 식사를 해보자.

생일을 적극 축하하라!

전사적으로 팀에서 생일을 축하해 줬더라도 평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직원이라면 소소한 기프티콘 선물이나 책과 같은 부담 없는 선물,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페이스북 담벼락의 생일 축하 메시지도 좋다.

검은 빨대를 정리하라!

어떠한 조직에도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시키는 검은 빨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상황이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매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직을 고민하지 말자. 표시 안 나게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업무에 충실하자.

글=윤선현 베리굿정리컨설팅 대표
출처=한국EAP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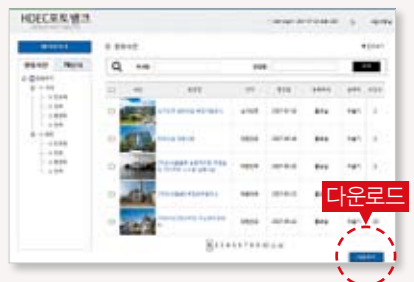
그룹웨어 돋보기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면? 'HDEC 포토뱅크'로!

"보고서에 현장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 어디서 찾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퍼뜩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목하자. 국내외 현장 사진부터 최근 발간한 〈현대건설 70년사〉 속 사진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진 관리 시스템, 'HDEC 포토뱅크'를 소개한다.

Step 1 접속하기!

'HDEC 포토뱅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룹웨어 로그인이 필수다. 그룹웨어 상단 메뉴바에서 'Knowledge'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지식관리] [기록관리] [e-Book]이라는 세 가지 상위 메뉴가 나온다. 그중 [기록관리] 아래의 'HDEC 포토뱅크'를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린다.



Step 2 다운받기!

'HDEC 포토뱅크'라는 새 창이 열렸다면 절반은 성공! '현장 사진' 섹션에는 국내와 해외, 사업본부별 사진이, '70년사' 섹션에는 간척지/항만, 교량, 고속도로/전철/철도 등 좀 더 세부적으로 사진이 정리돼 있다. 특정 현장의 사진을 찾고 싶다면 상단 검색창에 국가명과 현장명을 입력하면 된다.

Step 3 등록하기!

현장 공정 사진이나 완공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의 '사진등록' 버튼을 눌러보자. 화면이 전환되면 분류/제목(현장명)/국가/촬영일 등 각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낱장 혹은 폴더로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사진은 2MB 이상의 고용량으로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

매년 여름 반려견만 집에 혼자 두거나 타인에게 맡기고 전전긍긍하며 휴가를 떠났다면, 올여름엔 반려견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반려견과 함께 숙박이 가능한 전국 각지의 호텔과 펜션을 소개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각 지역 명소를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색다른 추억을 쌓는 것도 좋다. 글=김시연 〈라이프앤도그〉 편집장

애견 호텔&펜션 BEST 6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

힐튼 남해골프&스파 리조트

힐튼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는 '펫 프렌들리 룸 서비스'를 운영한다. 애완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 곤란함을 겪는 고객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반려동물도 한 명의 고객처럼 객실에서 호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식기와 배변 패드, 시트, 배변 처리용 봉투, 기본 쿠션 등을 제공해 애완용품을 별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더불어 객실 내에서 채소그라탱이나 햄볶음밥 등 '애완동물 전용 룸서비스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 출입은 위생상 제한하고 있어 객실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고안해 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힐튼 남해 전체 객실 170개 중 타입별로 1개씩 총 4개의 객실만 애견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레스토랑이나 공용 공간에는 동반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목줄을 채우고 배변 봉투를 챙길 경우 산책은 가능하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앞에 두고 반려견과 산책까지 즐길 수 있는 힐링 여행을 하기에 손색이 없다. 객실당 최대 두 마리(각 34kg 이하)까지 함께할 수 있고, 1박에 5만원(봉사료 및 세금 포함)의 서비스 비용이 추가된다.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179번길 40-109
문의 055-860-0100, www.hiltonnamhae.com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

더코브 호텔

더코브 호텔

제주도 서귀포시 하예동의 조용한 바닷가 앞에 위치한 호텔. 중문관광단지에서 10분, 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있다. 리조트 내에 레스토랑과 카페 '카페베네' 등이 있다. 부대시설로는 러닝머신과 사이클 등이 있는 피트니스센터, 180인치 영상과 최고급 소파를 갖춘 시네마실, 워크숍을 위한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목욕·드라이 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펫 호텔이 따로 마련돼 있다. 인근에 대평포구, 안덕계곡, 송악산, 주상절리, 화순금 모래해변, 아프리카박물관, 테디베어박물관 등 관광지가 많다. 펫 호텔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마리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형견일 경우 미리 입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반려견과의 객실 입실은 불가하다.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15
문의 064-738-1007, www.thecove.co.kr

오뉴월펜션

오뉴월펜션

기와집으로 된 1층 룸, 2층 룸, 복층형 3층 룸으로 구성돼 있으며 애견 미용, 뷰티, 셀프 목욕 등 애견을 위한 멀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애견용품으로 식기, 애견 털 제거기, 침대 등이 준비돼 있고 잔디 마당 주위로 안전하게 울타리가 둘러져 있다.

뒷마당에는 애견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욕조와 바비큐 테이블이 마련돼 있다. 애견 생일파티와 플라워 레슨 등을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룸과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카페 등의 시설도 구비돼 있다. 인근에 주전몽돌 해변, 정자 해변, 토성도예예술촌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 1룸 2인 2견 기준이며, 반려견이 추가될 경우 마리당 1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주소 울산시 북구 구남2길 23
문의 052-294-9798, www.ohnewwall.com

스위트몽 펜션

6610㎡(2000여 평) 규모로 총 9개의 객실이 독립적으로 구성돼 있는 독채형 펜션. 객실 주변으로 정원 3곳과 잔디 마당이 있다. 정원은 동반 애견 보호를 위해 제초제나 살충제를 쓰지 않고 정기적으로 월 2회 잡초를 직접 제거하며, 방제 소독을 한다. 지하 암반수를 사용하는 수영장은 일반인 수영장과 애견 수영장으로 구분돼 있다. 애견 수영장은 150평 크기의 넓은 데크 위에 낮게 설계돼 있으며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다. 물을 싫어하는 애견들을 위한 원형 볼 풀장도 마련돼 있다. 수영장 앞쪽에는 강아지 셀프 목욕실, 카페, 간이매점, 세탁기, 만화, DVD가 진열돼 있는 클럽하우스가 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식빵과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간이매점에서는 간단한 라면, 즉석 밥, 음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수영장 한쪽에는 샤워장과 편백나무 사우나가 있다. 10kg 이하 애견만 동반 가능하며 객실에 따라 마리 수가 제한된다. 1마리에 1만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스위트몽 펜션

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222-5
문의 031-585-6155, www.sweetmong.com

햇살가득펜션

4개의 원룸형 객실, 1개의 복층형 객실이 프로방스풍으로 꾸며져 있는 애견 전문펜션. 객실별 개별 데크에서 독립적으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애견들이 담을 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잔디 마당에 높은 울타리를 설치해 놓았으며 애견 전용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다. 펜션지기는 애견 목욕탕 이용료를 모아 매달 유기견 보호 센터에 기부하고 있다고. 가까운 곳에 불국사, 석굴암, 경주월드, 캘리포니아비치, 세계문화엑스포, 보문호수, 신라밀레니엄파크 등 관광지가 많으며 펜션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객실당 소형견 1마리 무료. 최대 소형견 기준 4마리까지 허용. 중형견 이상은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햇살가득펜션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1길 39-5
문의 054-773-3100, www.gjsunshine.co.kr

돌꽃펜션

국내 최대 규모의 애견 펜션으로 396㎡(120평)의 야외 수영장, 924㎡(280평)의 전용 계곡, 1980㎡(600평)의 잔디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어 한자리에서 물놀이·캠핑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30명,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세미나실과 강당이 있어 애견 동호회나 워크숍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해도 좋다. 수영장은 지하 암반수(1급 식수)를 사용하고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애견 실내 수영장은 1년 365일 개장해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계곡 옆에 위치한 애견 잔디 운동장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외곽에 석축과 펜스를 둘러놓았다. 애견 야외 샤워장 옆에는 무료 애견용 샤워 부스와 스탠드형 드라이어가 설치돼 있다. 동반 시 반려견 크기, 마리 수 제한이 없으며 소형견(5kg 미만) 1만원, 중형견(20kg 미만) 2만원, 대형견(20kg 이상) 3만원, 초대형견(30kg 이상) 4만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티2길 36-4
문의 010-9552-1950, www.dolflower.com

돌꽃펜션

Tip 반려견과의 여행을 준비한다면! CHECK LIST

건강 상태를 살핀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반려견이 낯선 여행지에서 아프게 되면 낭패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차멀미 또는 설사를 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계획을 세운다
여행을 가서 반려견과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운다. 바다나 애견 전용 수영장이 있는 숙소로 간다면 그에 맞는 준비물을 챙긴다. 숙소 외에 관광지를 갈 계획을 세웠다면 코스도 꼼꼼하게 따져 본다. 너무 가파르고 관리되지 않은 잡초나 나무가 우거진 곳, 뾰족한 바위나 조개 껍데기가 많은 곳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준비물을 챙긴다
사료 그릇, 배변 패드, 반려견용 수건, 배변을 치울 비닐 봉투 등을 구비해 놓는 숙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위의 물품들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이외에 이동 시 사용할 목줄과 목걸이, 반려견이 평소 먹던 사료 등은 반드시 챙기고 강아지 옷, 상비약과 멀미약 등도 준비하면 좋다.

COBA(코바)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1길 3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Break Time 오후 3~5시)
문의 02-744-4849

싱크로율 100%에 도전한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 COBA(코바)

COBA(코바)는 지난달 7일 오픈한 베트남 쌀국수집이다. 3층 규모의 레스토랑 내부에 들어서면 인공 연못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어우러진 야외 테라스가 한눈에 들어온다. 테라스에는 현지에서 배로 운송해 왔다는 베트남의 명물 '시클로(3륜차)'가 전시돼 있다.

코바는 베트남 현지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면과 소스를 공수해 오는 것은 물론, 베트남 출신 주방장이 직접 요리를 한다. 메뉴는 후띠우 남방(물 쌀국수, 볶음쌀국수)·껌승(돼지고기 바비큐 덮밥)·분짜 하노이(돼지고기 비빔국수)·분팃능(베트남 전통 비빔국수) 등 총 5가지. 깔끔하고 단백한 맛이 특징이다.

소고기로 육수를 낸 일반 베트남 음식점과 달리 이곳은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듬뿍 넣어 육수를 끓인다. 진하면서도 개운한 감칠맛으로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에도 그만이다. 마늘, 절인 고추, 레몬그라스 줄기로 만든 삿데 등이 따로 나오는데 곁들이면 맛이 배가 된다.

코바의 주력 메뉴는 분짜 하노이다. 지하 작업실에 있는 면제조기로 직접 뽑은 면을 기본으로 숯불 돼지고기, 신선한 채소를 자체 제작한 소스에 살짝 담가 먹는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소스와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다.

서성호 코바 대표는 계동과 인연이 깊다. 가게 바로 옆에 위치한 비원 칼국수를 1987년부터 운영해 온 어머니를 도와 자연스레 계동에 터를 잡은 서 대표는 그야말로 계동의 터줏대감이다. 서 대표는 "베트남 현지 쌀국수 맛을 한국에서 제대로 내는 곳이 없는 게 아쉬웠다"며 "손님들이 이곳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쉬다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맥주도 판매한다. 창덕궁이 한눈에 보이는 2·3층 야외 테라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여유를 부려도 좋을 듯 하다. 9월부터는 SBS 드라마도 촬영한다고 하니 더 유명해지기 전에 가보자. 총 104좌석, 룸 5개.

1 COBA(코바) 외부 전경 **2** 3층 야외 테라스 **3** 껌승(돼지고기 바비큐덮밥) 1만2000원 **4** 소스에 담가 먹는 분짜 하노이(돼지고기 비빔국수) 1만2000원 **5** 후띠우 남방(물 쌀국수) 8000원.

글=김승희 / 사진=이슬기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 제시시
①맥주 2+1 제공
코바 영수증 제시시
②비원커피 음료 1+1 제공
2017년 7월 한달간

문화 책갈피

연말과 함께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여름을 맞아 본격적인 뮤지컬 대전이 시작됐다. 공연장 피서를 계획하는 관객들을 위해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동적인 움직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더위를 날려줄 뮤지컬을 선별했다.

무더위 확~ 날려줄 뮤지컬 베스트

캣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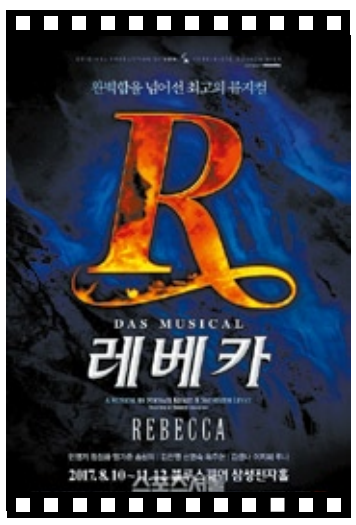
공연 기간 7월 11일~9월 10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미국·영국·호주·남아공 등에서 펼쳐진 5개월간의 오디션을 거쳐 높은 기량을 가진 캐스트를 완성한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이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거대한 고양이들의 놀이터에서 1년 중 단 하루 열리는 축제인 '젤리클 축제'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극을 따라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고양이 캐릭터들의 스토리가 펼쳐진다.

아리랑

공연 기간 7월 25일~9월 3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0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이 무대 위에서 음악과 함께 연출된다. 일제 강점기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담았다. 국악과 양악을 아우르는 22인조 오케스트라의 '아리랑 변주'도 들을 수 있다. 2015년 초연 당시 제작기간 3년, 제작비 50억원, 4만여 명 관객 동원 등 각종 기록으로 화제를 모았다.



레베카

공연 기간 8월 10일~11월 12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거장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를 모티브로 제작된 뮤지컬 '레베카'는 민영기·정성화, 엄기준·송창의·김선영·옥주현·루나 등 전례 없는 최강 캐스팅을 발표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2013년 국내 초연 때 원작자인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로부터 "한국 무대가 세계 최고다"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정글북

공연 기간 7월 7일~8월 27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뮤지컬 '정글북'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기는 가족 뮤지컬이다. 오랜 기획, 제작 기간을 거쳐 탄생한 만큼 2016년 서울 초연 때 100회 동안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고, 다양한 동물들의 노래와 실감나는 안무는 관객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The season in this picture seems to be hot summer as people are wearing light clothing. A woman with black hair seems like explaining something in front of the group of people and, they are all listening to her. There are eight of them. Four of them are women and the other four are men. Some of them have the bags and the others aren't. One man and one woman are clasping their hands behind their back. The woman in shorts on the left corner is covering the sunlight with her hand. The woman next to her is wearing sunglasses and has a white bag on her shou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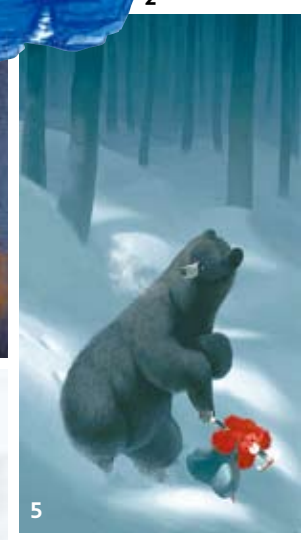
Opinion Question 유형

Lookism means a term to describe a setting where there exits discriminatory treatment toward physically unattractive people. Is it wrong to judge a person by his or her outward appearance? Giv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I think it is wrong to judge a person through his or her physical appearance.. How can you judge a person by his just looks, features, or clothes, because your features, your looks or your clothes do not tell about your personality traits, your wisdom, your character or your way of thinking, but your speech, your behavior and your character do. It is truly a biased thing to make a certain thought or beliefs about someone only by seeing him.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픽사'가 30주년을 맞아 다음달 8일까지 특별전을 연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들이 3D 모형으로 전시되며, 스케치와 조각 등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토이 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몬스터 주식회사〉 〈인사이드 아웃〉 등 인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30주년을 기념해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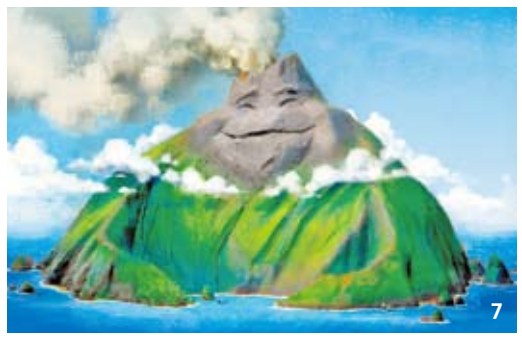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에서는 애니메이션이 탄생하는 과정은 물론 스케치, 드로잉, 스토리보드, 캐릭터 모형 등 픽사 관련 작품 500여 점을 선보인다.

픽사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을 비롯해 전통 방식인 연필 드로잉과 파스텔 채색, 캐릭터 모형 조각을 수작업으로 하는 아티스트도 많다. 여러 아티스트가 협업해 한 편의 픽사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풍부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에는 '토이 스토리 조이트로프(zoetrope)'와 '아트스케이프(artscape)'라는 독창적인 설치 작품도 볼 수 있다. '토이 스토리 조이트로프'는 일련의 연속된 정지 이미지들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착시 효과를 일으켜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3D 입체 형태로 구현한 작품이다. '아트스케이프'는 미디어 설치 작품으로, 콘셉트 작업부터 최종 결과물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픽사 아티스트들의 작업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은 다음달 8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전시관에서 휴관일 없이 열린다.

~2017.8.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M배움터
02-580-1300 | www.ddp.or.kr

1 마이크와 설리, 몬스터 대학교, 종이에 잉크와 마커, 2013. **2**. 슬픔, 인사이드 아웃, 종이에 색연필과 마커, 2015. **3**. 오프닝 시퀀스, 룩소 2세, 종이에 파스텔, 1986. **4**. 메리다, 메리다와 마법의 숲, 종이에 연필, 2012. **5** 엄마 곰과 메리다, 메리다와 마법의 숲, 디지털 페인팅, 2012. **6** 주방의 레미, 라따뚜이, 디지털 페인팅, 2007. **7** 우쿠, 라바, 디지털 페인팅, 2014. **8** 컬러스크립트, 굿 다이노, 디지털 페인팅, 2015. **9** 시퀀스 파스텔, 니모를 찾아서, 종이에 파스텔, 2003.